

“난치병 어린이 도와 주세요”

윤도현·이선균·유승호 등 11명 캠페인 동참

가수 윤도현(사진)과 배우 이선균이하나 지현우, 이역배우 유승호 등 스타 11인이 난치병 어린이를 돋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이들은 모토로라코리아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돋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재단과 함께 기획한 ‘위시북(WISH Book)’ 출간에 참여했다. 위시북은 메이크어위시재단을 통해 꿈에 그리던 소원을 이루거나 자신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사연과 이를 돋기 위한 다양한 참여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 11인과 일반인 10여 명이 참여한 위시북에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중한 소원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다.



토미 리 존스, 앨 고어 ‘노벨 평화상’ 축하 공연 MC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하버드대 재학 시절 템마이트였던 배우 토미 리 존스(사진)가 내달 1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기념 콘서트의 사회를 맡는다고 AFP통신이 7일 보도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공개한 존스의 약력에 따르면 존스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던 시절 앤 전 부통령과 기숙사 방을 함께 썼다.



음식업 전남도지회 수해성금 1천만원 전달



(사)한국 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회장 최용평)는 7일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고흥지역 음식업자부 회원들을 위로 방문하고 수재 의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제공)>

공동모금회-철도공 ‘사랑의 모금함’ 설치 협약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는 지난 7일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지사장 양현욱) 사무실에서 사랑의 모금함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유지승(전남도청 보건한방과장)씨 장남 일현군 전해진씨 8녀 남희양=11일(일) 오전 11시10분에 벌루선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오정호(비뇨기과 의원장)씨 차남 상민(삼성 광주전자)군 배운자씨 장녀 김현선(일어학원 강사)양=11일(일) 오후 1시20분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박찬복씨 장남 원택(조선대 홍보팀)군 전병채씨 장녀 선혜(염주초교 교사)양=11일(일) 오후 1시40분에 벌루선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동필(광주 보건대 교수)씨 장남 학준군 서의부씨 차녀 영경양=11일(일) 오후 2시20분에 벌루선웨딩컨벤션 1층 세이지홀.

▲윤재문(전 광주일보 국장)씨 차

남 주호(국방부 법무관)군 이춘교(경북 울진경찰서 경무과장)씨 딸 선녀(울산지검 검사)양=10일(토)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예식장 4층 무궁화홀.

▲박영수씨 막내 환필군 최종문씨 5녀 정희양=10일(토) 오전 11시 50분 삼성웨딩홀 3층 다이아몬드홀.

▲이희풍씨 장남 수호군 장경택(전 농협 전남도 본부장)씨 차녀 수미양=10일(토) 오후 1시 애벌루션 웨딩컨벤션 1층 세이지홀.

▲김선남(광남일보 부사장)씨 장남 현석(KTT 주임)군 김용일씨 차녀 숙현(SK텔레콤)양=10일(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치주열(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씨 장남 호길(대우인터내셔널 대리)군 혼은자씨 차녀 강의향(서울 사근초교 교사)양=10일(토) 오후 1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서남권 하늘 문지기 “안전·친절이 최우선”

■ 10월 행 부산지방공항 무안공항 출장소장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이 8년의 공사 끝에 문을 열고 서남권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돼 기대가 큽니다. 최첨단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최대한 안전하고 이용객 중심의 친절한 공항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00m 활주로, 양방향 이착륙 가능

8일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이원행(48) 부산지방공항공청 무안공항 출장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공항에 바라는 기대가 매우 커 책임감이 무겁다”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광주 출신인 이 소장은 무안공항 개항으로 역할을 다한 목포공항 출장소장을 4개월여 지내다 이번에 더욱 막중한 업무를 맡게됐다.

그는 “고향지역의 중요한 인프라인 무안국제공항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 소장은 무안국제공항의 장점을 소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무안공항은 연간 안개일수가 16일(인천공항 48일)로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주변 기상여건과 주변에 장애물이 거의 없어 공항 입지로는 최적입니다. 또 2천800m의 활주로는 거리 550m로 양방향 이착륙이 가능해 현재로도 각종 항공기 이착륙에 전혀 장애가 없지만 미주지역 등 장거리 비행을 하는 초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해 3천200m를 들리는 데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라며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또 무안국제공항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항운영에 필요한 1천200개 항목의 점검을 통해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는 ‘국제공항 운영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최첨단 관제 시스템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 보장은 물론 공항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첨단 관제시스템, 안전 운항 보장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훌륭한 여건을 갖춘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신규 국제선 확충에 힘써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火魔와 싸우다 숨진 동료에 미안할 뿐”

소방의 날 ‘대통령 표창’ 광주 소방본부 이천택 소방령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1997년 광주 서림 초등학교 체조부 학습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큰 부상을 당했던 소방관이 오는 9일 ‘소방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 화제다.

화재의 주인공은 광주 소방안전본부 정보통신팀 이천택(46) 소방령.

지난 1997년 서림초교 학습소에서 일어난 불로 학습소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 2명과 소방관 1명이 숨졌는데 당시 이 소방령은 북부소방서 장비계장으로 근무

하면서 동료와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소방령은 당시 무너져내린 학습소 건물 더미에 깔려 크게 다쳤으며 같은 진화 작업을 하던 동료 공현식 소방관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 소방령은 사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진 뒤 업무에 복귀, 꾸준한 건강 관리로 지금까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소방 행정과 예방에 힘써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얻게 됐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에게 미



안한 마음이 들어 “같이 화재 진압을 했던 동료가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난 이렇게 간부도 되고 표창도 받게 되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다는 그는 업무 중에도 틈틈이 공부해 최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소방재정 확충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소방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팔순 잔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8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80회 생일 잔치를 겸해 작가 조정래씨의 위인전 시리즈 ‘박태준 전기’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 찾았다.

박 명예회장은 1927년 9월29일(음력)생으로 올해로 80세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박 명예회장의 가족들이 ‘박태준 전기’ 출판 기념회를 겸해 박 명예회장의 생일잔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부인 장옥자(76)씨와 솔하에 장남인 박성빈(42) 사운드파이프코리아 대표 등 1남 4녀를 뒀다.

박 명예회장은 이날 행사에 친지를 비롯해 박준규 전 국회의장, 강재섭 한나리당 대표, 조석래 전 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계 및 재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했다.

또한 ‘박태준 전기’를 집필한 조정래씨와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윤석만 사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 멋진 무대 보여줄게요”

팝스타 비욘세 9~10일 첫 내한공연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쁩니다.”

9~10일 첫 내한공연을 펼치는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26)가 팬들의 환영 속에 8일 한국 땅을 밟았다.

비욘세는 이날 오후 2시40분에 자신의 전세기 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현장에서 내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다른 도시보다 더 긴 4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고 공연도 두 번이나 펼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내 공연에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욘세가 3시19분쯤 도착케이트에 모습을 드러내자 차내에 환호声이 터져나온다. 그는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 같다”고 말했다.

또 “나는 세계 각 도시의 건축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머무는 일정이 긴 만큼 시간이 나면 여러 곳을 둘러보고 싶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그는 5분가량 진행된 현장 행사에서 “정말 고맙다”고 입을 연 후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 같다”고 말했다.

또 “나는 세계 각 도시의 건축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머무는 일정이 긴 만큼 시간이 나면 여러 곳을 둘러보고 싶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디지털뉴스협회장에 박기정 전남일보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박기정 전남일보 대표이사를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협회는 또 김종열 부산일보 대표이사와 송광석 경인일보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웅길 매일신문 대표이사와 신태범 세계닷컴 대표이사를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한국디지털뉴스협회가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벌이고 있는 ‘디지털뉴스 저작권 신작사업’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은 신문업의 ‘구원투수’이자 ‘새로운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문사 콘텐츠에 대한 주권 회복 운동인 저작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6년 4월에 설립된 단체로 중앙과 지방, 지역 신문 등 모두 48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동창·동문회

▲석산고 14회 동창회 출업 20주

년 기념행사=10일(토)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385-9502

▲진흥고 3회 동창회(회장 조래길) 출업 30주년 기념행사=10일(토) 오후 5시 무등파크호텔. 016-603-6200

▲북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이석영) 월례회=12일(월) 오후 6시 동천장어. 225-0809

▲북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윤호) 월례회=12일(월) 오후 6시30분 장수회관. 232-1049